

순창 장류체험관, 관광객 유치 일등공신

세외수입 1억877만원 올렸다

지난해보다 62% 증가... 자유학기제 시행 따른 맞춤형 발품 마케팅이 주요인

순창 장류체험관이 500만 관광객 유치 일등공신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올해 5월까지 총 7,812명의 관광객이 장류체험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억 877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말 4,819명 체험객, 7,873만원 세외수입 대비 무려 62%가 증가한 수치다. 유료 체험객만을 집계한 수치로 실제 장류체험관을 방문한 숫자는 만명을 훌쩍 넘는다.

장류체험관의 인기가 비결은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춰진 맞춤형 발품 마케팅 덕분이다.

장류체험관 운영팀은 지난 1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학교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4,500여 곳에 장류체험의 재미와 특징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했다.

특히 순창과 인접한 지역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면서 체험객 유치에 나섰다. 홍보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경기 지역 체험객 52%증가는 물론 충청, 경상, 제주권까지 전국 각지에서 체험객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수학여행단이 숙박과 함께 체험을 진행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장류체험관에서 1박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서 식사는 물론 고추장 등 특산물 구입과 강천산, 삼전강 등 다른 관광지 방문 등



순창 장류체험관에서 체험을 즐기고 있는 초등학생들.

파급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

군은 장류축제를 중심으로 장류체험관 체험객이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반기 체험객 유치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단순 체험객을 1박 2일 체험형 관광객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류체험관의 외관을 정비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다 6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도시 아이들이 건강할 밥상과 우리 전통 장문화에 대해 배우는 '전

통문화학교'와 연계 추진해 도시아 이들에게 전통장류문화 교육과 장류 체험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군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장류체험관은 장류문화를 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류문화 교육과 더불어 흥미를 더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여행의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에게 손쉽게 우리 고유의 장류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닭피 비보림, 산림문화자산 지정

남원시, 남계 문화자산 2016-0010호로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닭피마을 비보림이 최근 산림청 고시 제 2017-53호에 의거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 '제2016-0010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산림자산 중에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유형·무형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포석 그리고 남계 닭피 비보림까지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남원 남계 닭피 비보림은 1456년 단종 왕위찬탈에 순응한 죄로 조상이 '불사이군' 충절을 지키고자 한 지역으로 낙향 후 마을을 형성하면서 조성한 숲이다.

충절이 깃든 숲은 마을 옆 섬진강 상류에서의 홍수로 인한 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마을보호 목적의 비보림기능, 마을 북쪽 장수(번

안)쪽에서 마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기능,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마을(닭피)에 우백호 역할로 기를 보강하기 위한 비보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목적용으로 조성된 숲에는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70여 종이 생육하고 있으며, 느릅나무와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숲 내에 조선시대 임금의 하명으로 조성한 이씨부인 열녀문이 있어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대해 부부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산림 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나무·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 조사

임실군은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토양오염 추세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해 사격장, 공장, 고철 보관 및 사용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리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일까지 해당 지역의 토양을 채취하고 카드뮴 등 8개 항목의 중금속을 비롯해 유기물질 오염도, 산성화정도 파악을 위해 총 22개 항목의 조사를 전복토 보전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중심지역 1개, 주변 4방위의 총 5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고 병장상태로 담ыл 운반, 분석해 실험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모내기 후 제초는 적기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모내기 후 알맞은 제초제 선택과 살포시기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온도 상승으로 잡초 생육이 빨라짐에 따라 적기 제초 시기를 놓칠 경우 저항성 잡초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잡초는 경합력이 우수해 이삭수를 감소시키고 도복을 유발해 최대 수량의 80% 안팎 미만을 33%까지 감소시켜 쌀 품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재배 양식과 잡초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해 적기에 적당량을 살포해야 한다. 잡초발생이 적은 경우 1회 방제하고 일년생·다년생 잡초가 많은 논은 초, 중기 방제와 중, 후기 방제 등으로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 가뭄피해 최소화·신속 대응 나섰다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가뭄재난대비 회의...시, "현재 '주의단계'로 상황에 촉각 기울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최근 계속되는 전국적인 가뭄 피해로 인하여 실시간 가뭄현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가뭄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난 2일 남원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가뭄재난대비 유관기관·단체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곧 이어 14일 실시되는 대규모 풍수해 대응 현장훈련 '준비 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대규모 풍수해 대응 현장훈련'은 14일 남원시 요천둔지에서 송하진 도지사

와 이환주 시장 등 남원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하고, 남원시 12개부서와 남원시 관내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국한기상으로 제방붕괴 및 차량유실 등 대규모 풍수해발생에 따른 재난대응 현장훈련으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상황별 훈련이 전개된다. 이와 관련 실시한 '훈련준비 상황보고회'는 관원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35명이 참석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실제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주제로 현장훈련 추진방침 설명

및 협조사항 전달, 토론 및 질의응답, 기관단체의 상호협력 체계 확립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가뭄과 관련, 현재 남원시의 올해도 강수량은 193.9mm로 평년의 63.1%, 저수율은 64.9%로 평년의 88.5%이며, 남원시는 "가뭄단계로 볼 때 저수율은 평년의 70% 이상에 해당되어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발 경작지의 가뭄피해가 우려되어 '주의단계'로 보여 실시간 가뭄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번기 맞아 덕치마을 등서 농촌일손돕기

본격적인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자발적인 봉사단체의 왕성한 활동이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임실군 성수면과 군청 측산산림과는 지난 1일 인구조사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직원 40여명은 봉강리 덕치마을 이영재(61세)씨 7,260㎡ 규모의 고추밭을 찾아 지주목 세우기, 풀치기 및 손 따기 작업을 실시해 농가 불편해소에 앞장섰다.

이어 2일 신평면 자원봉사단과 의용 소방대(대장 김왕식)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신평면은 접근성이 좋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해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쓰레기와 시설물 오염으로 돌살을 앓고 있다.

회원 및 소방대원 30여명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면 관계자는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오수면, 표지석 설치 위원회 열어

임실군 오수면은 할방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제2차 표지석 설치 위원회'를 2일 개최했다.

오수면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김진영 위원장, 최성미 문화원장, 이상덕 오수면장,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오수면 할방역참지의 역사적 고증과 제반 사항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지석 문인 ▲우수시례 벤치마킹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면은 오수역참 터를 찾아 상징적 조형물인 '오수역참비' 건립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덕 면장은 "할방역 표지석 설치를 위해 뜻을 함께하고 애써주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